

태권도의 언어문화 확장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태권도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

박명수 *

초 록

태권도는 한류의 시초로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스포츠로 현지화되었고 국내에서는 2018 년도에 국회에서 태권도를 ‘국기 (國技) 태권도’로 법률이 제정되어 명문화하였다. 태권도는 기술과 문화에 법적으로도 보장받은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태권도가 기술을 넘어 ‘차렷’, ‘준비’, ‘시작’, ‘바로’, ‘쉬어’ 같은 가장 기본적인 단어 이외의 태권도 용어에 잠재되어 있는 언어 문화적 확장력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의 보급에 보다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태권도를 언어와 문화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태권도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태권도의 언어문화 확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제 분석 결과 태권도를 언어문화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은 학위논문 2 편, 학술지 논문 3 편 등 아주 소수인 5 편의 논문뿐이었다. 한국 문화, 한국어 교재, 태권도 관련 뉴스 기사와 관련된 논문이었으며, 한 편은 ‘동작동사 연구’의 하나로 태권도를 활용한 경우였다. 이렇게 태권도와 언어문화를 연계한 논문은 몇 편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태권도를 언어문화 연구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도 이를 위해 태권도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언어문화 확장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초 연구로서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태권도, 국기 태권도, 태권도 기술, 세계화, 언어문화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講師.

I. 서론

한류의 시초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나 “태권도”라고 대답한다. 태권도는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스포츠로 현지화되었고 국내에서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 스포츠이다. 더욱이 2018 년도에는 국회에서 태권도를 상징적으로만 국기(國技)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국기(國技) 태권도로서 법률로 명문화하게 되었다.¹ 이제 태권도는 누구나 아는 태권도로, 기술과 문화에 법적으로도 보장받은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의 보급은 어느 시점부터인가 더 확장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한계에 다다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태권도의 체육학적인 원리와 태권도의 특성에 맞는 부분을 연관시켜 이해를 높이려는 시도가 한쪽으로만 치우친, 즉 불균형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것이다. 또한 태극 품새 1 장부터 8 장까지 공통으로 쓰이는 명령어인 차렷, 준비, 시작, 바로, 쉬어 등과 품새를 시연하고 있는 중에 멈추기 위한 명령어인 그만 등²의 단어를 가장 기본적으로 한글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단어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태권도 기술 용어에서도 한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언어문화³ 확장력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18 년 3 월 5 일 현재 국기위원장인 이동섭의원의 대표발의와 225 인의 동료 국회의원들의 서명으로 개정된 법률의 내용이다.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태권도의 국기에 대해 ‘제 3 조의 3(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를 신설하였다.

² 국기원 연수원 (2012), 태권도 유급자 품새 강의 지도서, 6, 국기원

³ 언어문화는 국어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언어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인류의 문화를 축적, 발전시키고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모든 활동을 언어로 이루는 문화라 할 수 있다. 국어문화는 그 범위를 좁혀 우리가 우리의 모국어인 국어를 통해 이루는 모든 문화를 가리킨다. 잊혀진 우리말을 발굴하여 살려 쓰거나, 잘못 쓰는 우리말을 바로잡거나, 우리말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등 국어를 통한 모든 문화 활동을 국어문화라 하겠다. (국립국어원의 온라인가나다 답변, 2017 년 8 월 30 일) 유네스코 (2002)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더부살이,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의 유래 및 기술의 우수성, 국기(國技) 태권도의 제정, 세계화를 통해 언어문화 확장 연구의 길을 모색하고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태권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동향을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주제별로 분석하여 태권도와 인접학문과의 불균형적 연구의 시도가 태권도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태권도의 언어문화 확장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⁴

II. 태권도의 유래, 기술, 법률, 세계화 및 인접 학문과의 관계

1. 태권도의 유래

삼국시대 이전부터 전통무예인 태권도는 무술(武術)로써만이 아닌 무예(武藝)로써 철학적 정신세계가 내재된 우리 겨레의 고유한 전통적 산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부족민이 함께 배우고 함께 즐기는 생활의 일부로서 생활문화의 하나로 존재해 왔다. 고대부터 문화의 일부로 존재해 온 전통무예가 오늘의 태권도로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태권도는 어디에서 왔으며, 역사적으로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태권도의 역사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고구려 벽화와 신라의 화랑 이야기이다. 신라인의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킨 화랑도 정신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민족 고유의 전통과 사상을 발전시킨 태권도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태권도교본, 2009:60).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술할 때도 고대의 태권도, 삼국 시대의 태권도, 고려시대의 태권도, 조선시대의

⁴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처음 계획은 선행 연구를 통한 태권도의 언어문화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들과 일반인들의 태권도의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자 하였지만 이번 발표문에서는 인식 비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는 추가적으로 연구하여 결과물을 향후 논문 자료집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태권도라는 식으로 기술되어 왔다 (이동섭, 2019:25).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을 필두로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태권도의 역사를 사실과 가공의 역사로 혼용하여 기술(記述)하고 있다. 해방 이후 태권도란 명칭이 사용된 이후부터 공식적인 태권도 역사로 서술하고, 그 이전의 한국 전통의 맨손무술과 발기술 중심의 전통무술에 대한 역사는 태권도의 탄생 배경으로서 전사(前史)적 성격으로 기술해야만 한다 (안용규, 2006: 이동섭, 2019:25-26 재인용). 태권도의 탄생 배경으로서의 전사(前史)적 성격으로의 한국 전통의 맨손무술과 발기술 중심의 전통무술에 대한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의 제천행사에서 무예를 유희의 하나로 이용했다. 1930년대 신채호는 삼국시대 이전의 제천행사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 기록에서 무예를 유희의 하나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비를 ‘신수두’단전의 경기회에서 뽑아 수박, 격검, 사예, 기마, 덕견이, 깨금질, 찰흙 등 각종 기예를 하며, 원근산천에 탐험하며 시가와 음악을 익히는 공동으로 일처에 숙식하며 지냈다.” (이동섭, 2019:25-26 재인용)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고분 벽화⁵, 신라의 화랑제도처럼 벽화와 제도를 봤을 때, 무예가 일상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인물 87명 중 60명이 무사였다는 것과 삼국통일의 주역 24명의 화랑에 대한 기록을 통해 무예가 일상화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동섭, 2019:27). 또 고려시대에는 대표적인 맨손무예로 ‘수박희’가 있는데 무인집권기에 손님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고 당시 무인 권력기구인 중방의 힘센 자들로 하여금 ‘수박희’를 시켜 이긴 사람에게 현장에서 바로 교위나 대정의 직을 상으로 주기도 하였다는 기록에서 ‘수박희’가 군인으로서의 보직 또는 계급의

⁵ 고구려 고분벽화인 안악 3 호분과 각저총 (씨름무덤), 무용총, 장천 1 호분 등에서 맨손무예의 모습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승진과 직접 관계되는 무재로서 기능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동섭, 2019:28-29). 또한 조선시대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전기는 무과와 일반 양인들이 진입한 다양한 병종들, 그리고 선발로 활용한 수박이 대표적인 전기 맨손무예의 하나였다. 특히 임금이 행차하여 벌이는 군사훈련 후에 무사들의 사기를 북돋고 격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무예활동으로서 임금의 친위 무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 특히 향리나 중들도 하는 민중 무예였다 (이동섭, 2019:29-30). 한마디로 태권도가 일반 대중의 문화의 하나로 진행되어 왔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함께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기에는 임진왜란 후 명나라 군을 통해 전해진 권법(拳法)과 18세기 이후 발기술이 주된 택견이 새로운 형태의 맨손무예로 등장하였다. 이 권법은 손기술로 조선에서 투로(套路) 형식으로 정리되고 권보에 수록되어 보급되었고 택견은 발기술로 발기술이 다양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맨손무예들은 무과의 하나로 제도적 측면에서 발전하기도 했지만 유희적 측면에서도 많이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의 맨손무예는 안타깝게도 일제의 통제를 받으면서 점차 단절되기 시작했다. 이 빈자리를 일제는 일본 무도를 한국지배의 하나로 가라데, 검도, 유도 등의 일본식 무술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 무덕회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해방 이후 일제의 잔재를 쇄신하는 노력으로 배척되었는데 그럼에도 일본 무도의 하나인 당수도와 공수도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권도의 존재 의미가 컸다. 해방 이후 태권도를 화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롭게 무술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먼저 명칭 부분에서 6·25 전쟁은 태권도를 우리나라의 무술로서 자리잡아가는데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육군소장인 최홍희가 태권도란 이름을 명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⁶ 하지만 그 명칭에서는 태수도,

⁶ 태권도라는 명칭은 발기술의 하나인 택견과 가라데 형식의 변형된 무술에 태권도란 명칭을

화수도, 당수도, 공수도, 심지어는 무덕관이나 창무관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인 태권도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해 태권도가 명칭은 존재했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은 여전히 일제의 언어와 무도 문화의 잔재가 남아있었다. 자연스럽게 우리 고유의 태권도의 언어와 문화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태권도의 명칭이 오늘의 태권도 명칭이 유래하게 된 때는 1954년 9월 제1군단 창설 4주년 기념일에 당시 29사단장이었던 최홍희 부대가 이승만대통령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을 때이다. “저것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던 태권이야? 태권이 좋아. 이것을 전군에 가르쳐야 해”라고 하면서 한자어 ‘태권’이 처음 나왔다고 한다 (최홍희, 2005:154-155).⁷ 이러한 태권도의 명칭 사용의 노력 외에도 태권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태권도를 정착시키고 보급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 태권도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군이 중심이 되어 태권도 시범단의 파견과 개척사범들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태권도라는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당시에는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외에도 군사외교의 강화, 파견국과의 친선도모, 민간외교관의 역할도 하였다. 최근에는 신한류의 하나로서 태권도를 문화와 민간외교관의 역할까지 겸하여 나아가고 있다.⁸ 이렇듯 고대부터 유희로 활용되어 온 전통무예가 생활문화로 존재해 왔다는 점과 태권도의 명칭에서는 일제의 언어와 무도 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가리고 나아가 태권도의 철학적 정신을 살리고 태권도에서 품새와 겨루기 등에 나타나는 여러 가

사용하자는데 쉽게 합의하였지만 초기에는 태수도, 화수도, 당수도, 공수도란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였고, 무덕관이나 창무관처럼 도장의 이름이 무술의 명칭으로도 사용되었다. 국내의 여러 도장에서 각기 달리 사용하던 무술이 1955년에 처음으로 태권도란 명칭으로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동섭, 2019, 국기태권도, 3, 영진문화사)

⁷ 최홍희 (2005), 태권도와 나, 154-155, 길모금, 이규석 외 6명 (2006), 태권도의 역사·정신 세미나, 26, 태권도진흥재단

⁸ 이 내용은 이동섭 (2019: 34-38)의 내용을 참고하여 핵심적인 내용만을 정리하였다.

지 용어 속에 녹아있는 태권도 정신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을 넘어 언어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태권도의 파견국과의 친선도모, 민간외교관의 성격, 최근 신한류 문화로서의 태권도가 세계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태권도를 기술적 접근만이 아닌 하나의 언어문화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태권도 기술의 우수성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로서 인체의 손과 발, 전신의 근육과 관절을 이용한 역학적 요소를 지닌 기술로써 상대를 먼저 공격하거나 제압하는 목적이 아닌, 상대 혹은 불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술과 공격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는 태권도의 평화정신(平和精神)과 호연지기(浩然之氣) 정신에 기인한 것이다(양진방·김현호, 2004; 안용규, 2006; 이동섭:38 재인용). 태권도의 기술에는 기본자세, 다양한 발차기의 기술, 품새, 태권도 기술의 총체인 겨루기⁹ 등이 있다.

태권도의 기본 자세와 품새는 신체의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 수양을 함양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개체적인 단순한 공격과 방어 수단으로서의 원시적인 무술이 인간의 인지가 발달되고 사회가 조직화됨으로써 싸우는 양상이 집단적 공동 대처 현상으로 바뀔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본다(국기원 연수원, 2012:8). 그리고 발기술은 습득하기 어렵고, 손기술보다 발기술이 약 3~5배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으며, 능력의 발휘하기까지 오랜 시간의 단련과 연습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 우월함으로 인해 전 세계에 많은 수련인구를 확보하고 있다(안용규, 2006: 241). 태권도는 기술 하나하나에 태권도의 구성 원리와 태권도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태권도 기술의 우수성과 사용은 타

⁹ 태권도 겨루기 수련은 우리에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능력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높여주며 자신감 및 정신력을 함양시켜 강인한 용기와 담력을 길러준다.

무도와 다르다. 또한 태권도 기술은 남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기 위한 기술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며 정의를 수호하는 한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동섭, 2019:40) 이렇듯 태권도는 기술의 우수성을 넘어 태권도 기술 하나하나에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태권도를 세계 여러 곳에 전하는 데 문화의 접근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통의 도구인 언어가 문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태권도도 기술 외에 언어문화로의 소통이 필요하다.

3. 국기 (國技) 태권도의 제정

국기 (國技) 태권도의 제정은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왜 태권도가 국기 (國技) 태권도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당위성의 문제로 인해 제정을 위한 발의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세계에 최초의 한류는 태권도이며, 태권도로 한국을 알렸다. 전 세계 209 개국에 우리나라 언어로 태권도가 전파되고 있다. 그들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까지 배운다. 「“이보다 나은 스포츠, 종목이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태권도를 국기로 인지하고 있는 관습법이다.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명문화 하자.”¹⁰고 주장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2018 년 3 월 5 일 대표 발의하고 동료 국회의원 225 인이 아래와 같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공동 발의하였다. 발의 내용의 핵심은 지금까지 상징적으로만 존재 하였던 국기 (國技) 태권도를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는 내용이었다.

¹⁰ 한혜진 (2018), “속도 내는 ‘국기 태권도 지정법’... 상임위 통과”, MOOKAS(GLOBAL MARTIAL ARTS MEDIA), 3 월 26 일자 보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조의 2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 (國技) 는 태권도로 한다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 무도로써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 (國技)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다 . 또한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 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였다 . 이처럼 태권도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 태극기는 국기 (國旗) 로써 <대한민국 국기법> 에 의해 제작 • 게양 • 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태권도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따라서 국기 (國技) 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써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다 (이동섭 , 2019:139) . 이 법률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 (國旗) 스포츠’, ‘세계적으로도 사랑 받는 스포츠’,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써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 등의 문구는 태권도가 더 이상 기술로서의 스포츠가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면서 민족문화의 상징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1971 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에서도 태권도의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 받아 나아가 국기 (國技) 로 인정받았다고 명시해 왔다. 따라서 태권도를 국기의 하나로 제정된 시점에서 한 나라의 대표적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이면서 문화가 녹아 있는 언어와 민족문화인 태권도를 하나로 하여 태권도를 언어문화로써의 확장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써 국기 (國技) 태권도를 법률로 제정한 것은 이런 의미와 역할에서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하겠다.

4. 태권도의 세계화

태권도의 세계화 작업은 1971 년 태권도의 국기 (國旗) 지정과 1972 년 세계본부도장인 국기원이 준공과 1973 년 세계태권도연맹 (WTF: World Taekwondo Federation) 이 창설로 조직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1988 년 서울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선보인 후, 2000 년 시드니올림픽부터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16 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연속적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¹¹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채택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꾸준히 종목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 스포

¹¹ 단일 무도종목으로서 태권도라는 명칭만 가지고 국제태권도연맹 (ITF: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의 수련인을 합산 한다면, 전 세계 약 1 억 5 천만 명 정도가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동섭, 2019:41).

츠를 넘어서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언어와 문화가 녹아 있는 스포츠임을 더욱 알릴 필요성이 있다. 또한 외국인이 태권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 스포츠의 내재적인 특성인 규칙성, 공격성, 협동성, 비언어적인 전달성, 성취감 등의 특성을 고루 갖추었고, 둘째로는 무도로서의 본질인 충, 효, 예, 인내, 극기, 예의, 염치, 백절불굴 정신, 호신을 위한 기술, 용기 등을 통한 전통과 규범을 익히는 교육적 측면 때문이다. (김명수, 1992; 이동섭, 2019:43 재인용) 나아가 1차, 2차, 3차 세계화 과정을 통해 태권도가 세계화되었다. 1차 세계화 과정은 세계태권도 연맹 결정으로, 2차 세계화 과정은 경기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한 것으로, 3차 세계화 과정은 1980년대 이후 올림픽 정식종목 진출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각각의 과정을 통해 태권도가 세계화되었다.¹²

현대의 다문화시대에도 태권도를 세계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태권도를 민속문화의 콘텐츠로 인식하여 세계화하는 것이다. 그 한 예로 정책과의 연계, 유통방식, 시범문화의 특성 등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한류 콘텐츠로써 태권도 시범문화에 대한 문화정책은 태권도 시범문화의 문화콘텐츠화 그리고 외교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신한류 콘텐츠로써 태권도 시범문화의 유통방식은 미디어를 통한 노출과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한류 콘텐츠로써 태권도 시범문화의 특성은 문화콘텐츠 제작방식 그리고 K-Culture와 같은 문화콘텐츠의 확대가 필요하다.¹³

¹² 이 내용은 (송형석·이규형, 2005:57-67)의 내용 중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부분만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동섭 (2019:43-44)은 현 국기원장은 동양무도로는 최초로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하고, 이어서 외교관 출신의 걸출한 스포츠 행정가인 김운용 전 총재의 탁월한 외교력과 태권도인들의 노력으로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이 태권도를 세계화한 데 대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한다. 또한 대만의 우칭귀 IOC 위원이 전해준 음수사원 (飲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생각하라) 사자성어를 통해서 태권도의 세계화를 기억한 부분을 언급하였다.

¹³ 이 내용은 강재원 (2013: 79-104)에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정리한 것이다.

이렇듯 태권도의 세계화는 태권도를 더 이상 기술적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태권도를 문화로 바라보고 있으며, 비언어적 표현을 넘어서 한 나라의 문화가 포함된 언어문화적 측면으로 인식되고 나아가야 한다. 특히 현대의 다문화시대에 전 세계인이 언어와 문화로 소통하는 시대에서는 더욱 더 태권도를 기술적 보급을 넘어서 언어문화로의 확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태권도와 인접학문과의 관계와 연구 분야

태권도와 인접학문과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태권도를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고, 누가, 어떻게 세계화하느냐에 따른 대상별, 체육학적 원리, 태권도의 특성에 맞는 부분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대상별로 태권도를 수련하고자 하는 수련생, 태권도 선수들, 태권도 선수들을 지도하는 사범과 코치, 일선지도자, 해외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 사범 등에 따라 연구 분야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원리적인 분야, 즉 체육학적 원리로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운동심리학 분야에서 태권도 운동의 특수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실제적이고 태권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원리적인 측면 외에 실제적인 측면에서 태권도의 인접학문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도장이라는 현장에서 지도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 교본 (2009:80-83)에서는 태권도와 인접학문과의 관계와 연구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위 <표 1>에서 제시된 태권도와 인접학문과의 관계와 연구 분야에서는 태권도의 기술적인 부분과 운동, 철학 사상 등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나 태권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그 언어 속에 녹아 있는 문화까지는 세부 분류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지금까지 태권도를 기

< 표 1 > 태권도와 인접학문과의 관계와 연구분야

태권도 분야	하위 분류 및 내용
태권도 연구 (Studies on Taekwondo)	① 태권도 기본 : 태권도 품새 - 태권도 겨루기 ② 태권도 정신 철학 : 태권도의 사상적 근원 - 태권도의 정의, 목적, 가치 ③ 태권도 지도 : 태권도 지도 원리, 방법, 예절 지도 - 태권도 지도 교수 계획표, 태권도 평가, 시설 관리 ④ 태권도 시범 : 태권도 시범 구성, 시범 훈련 - 태권도 시범 실제 내용 ⑤ 태권도 경기 : 시설, 용구, 복장, 경기운영 - 심판원 임무 구성, 승패의 결정 심판 신호 ⑥ 태권도 선수 훈련 : 훈련 원리, 준비, 정리운동, 체력훈련, 기술훈련 - 훈련 연간 계획, 체중조절 컨디션닝 ⑦ 태권도 상해 예방과 응급처치 - 상해종류 원인 - 예방 응급처치 구급법 ⑧ 태권도 역사 : 고대, 중세 / 근대, 현대
태권도 구성 (Composition of Taekwondo)	① 태권도 철학 : 사상적 근원, 정의, 목적, 가치, 정신 철학 ② 태권도 과학적 기초 :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운동심리학, 인접학문 ③ 태권도 지도 : 지도 원리, 지도 방법, 예의 지도, 수련 과정, 단련 심사, 시설 관리 ④ 태권도 기본 : 용어, 신체부위의 명칭, 서기, 막기, 공격 ⑤ 태권도 품새 : 의의, 구성, 유급자품새, 유단자품새 ⑥ 태권도 겨루기 : 의의, 구성, 맞추어겨루기, 자유겨루기, 특수겨루기 ⑦ 태권도 시범 : 의의, 구성, 시범훈련실제 ⑧ 태권도 경기 : 시설용구, 복장, 심판구성임무, 경기운영, 승패결정, 심판신호 ⑨ 태권도 선수 훈련 : 훈련원리, 준비운동, 정리운동, 체력훈련, 기술훈련, 훈련계획, 체중조절과 컨디션닝 ⑩ 태권도 상해예방 응급처치 : 상해종류, 상해원인과 예방, 응급처치 및 구급법 ⑪ 태권도의 역사 : 고대, 중세, 근대, 현대

< 표 1> 태권도와 인접학문과의 관계와 연구분야 (계속되는)

태권도 분야	하위 분류 및 내용
태권도의 과학적 기초 (Scientific Basis of, Taekwondo)	① 태권도와 운동생리학 : 태권도와 레크리에이션, 태권도와 교육평가, 태권도와 교육과정, 태권도와 발육발달, 태권도와 신체적성운동, 태권도와 정신철학 ② 태권도와 운동심리 : 태권도와 역사학, 태권도와 사회학, 태권도와 경영행정학, 태권도와 측정학, 태권도와 통계학, 태권도와 해부학, 태권도와 영양학 ③ 태권도와 운동역학 : 태권도와 위생학, 태권도와 균정학, 태권도와 미학, 태권도와 신체훈련, 태권도와 트레이닝, 태권도와 코우치학, 태권도와 시설관리학

술적인 측면, 즉 운동과 교육과 교수자에게 초점을 두고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태권도가 세계화의 중심에 있기에 태권도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 수련생들과 외국인 지도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태권도가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한국어와 동시에 한국의 문화를 습득하는 단계로의 연구와 교육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III. 태권도 관련 ‘주제별’ 연구 동향

태권도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태권도의 구성 원리와 철학의 관점에서, 태권도 기술을 주제로 하여, 지도자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한류와 세계화를 주제로 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본 연구는 태권도 관련 주제별 연구 동향을 통해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는지를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으로 나눠 각각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태권도를 언어문화로 확장하는 연구에서 얼마나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논문 검색은 국내 연구자들이 자주 방문하고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¹⁴ 에서 하였다. 논문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모두를 대상으로, ‘태권도’를 키워드로 하여 학위논문 1,500 편과 학술지 논문 1,490 편 등 총 2,990 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유사 주제별로 묶어서 연구 주제를 분류하였다.¹⁵ ‘태권도’를 키워드로 해서 분류한 결과 연구 주제가 다양하고 일부 연구 주제는 폭넓고 깊게 세분화되어 있는 논문도 있었다. 그래서 1 차적으로 태권도의 전반, 지도 원리, 기술, 문화, 세계화를 중심으로 하되, 유사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연구 주제에 대한 세부 분류 내용은 다음 < 표 2> 와 같다.

태권도의 전반에 대해서는 개념, 명칭, 지도 원리, 기관, 조직 등 세부 내용을 포함시켰고 태권도 역사와 철학에서는 발전과정과 변천사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태권도에서 기술은 기본자세, 발차기, 품새, 겨루기를 각각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태권도의 기본자세는 공격과 방어의 원활한 기술연결을 가능케 하며, 몸의 중심유지 및 이동,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을 극대화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태권도의 발차기는 타 무술보다 더 우수성을 인정 받는 다양성이 있다. 품새는 혼자서 수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의 제한이나 장소의 제약이 없으며 동작의 강약을 조절하여 자신의 몸에 맞게 무리 없이 수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동섭, 2019:39). 겨루기는 태권도 기술의 총체로 태권도의 기본동작과 품새에서 습득한 다양한 공방의 기술체계를 실제로 겨루어 보는 실전의 형태로 빠른 반응과 민첩성, 순발력이 필요한 고도의 기술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동섭, 2019:39-40). 이러한 태권도 기술과 수련 자체의 방법적인 것과 수련으로 인해 생기는 인체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각각 주제를 삼았다. 문화는 시범문화와 공연문화 중심으

¹⁴ RISS(리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국내 • 국외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https://www.riss.kr/index.do>)

¹⁵ 연구 주제는 다양하고 깊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주제별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 중심으로 분석하여 가급적 유사 주제로 묶어서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 표 2> 연구 동향의 주제별 분류 및 세부 내용

연구 주제		세부 내용
태권도 전반		개념, 용어, 명칭, 지도와 구성 원리, 기관, 조직 등
태권도 역사 및 철학		변천과정, 발전사, 철학
태권도 기술		기본자세, 발차기, 품새, 겨루기
태권도 교육	교육과정	프로그램개발, 교육제도, 교재, 훈련모형개발, 태권도 수업, 평생교육으로서의 태권도
	한국어교육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태권도를 활용한 동작동사 연구, 한국어 교재, 외국인 유학생 교육, 한국 문화교육으로서의 태권도
태권도 문화	시범문화	해외 태권도 시범 관련 문화
	공연문화	관광, 체험, 영화, 경연대회
태권도 세계화	한류, 신한류	해외봉사, 세계화, 선교활동 등
	산업 및 문화 콘텐츠	디자인개발, 미디어, 인터넷
태권도 수련인	지도자	(국내외) 지도자 리더십,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조건, 지도원리, 지도 방법 등
	선수 (시범단원 포함)	불안, 스트레스, 체력, 심리적 안정감, 상해, 환경, 만족도
	초등 / 청소년 / 대학생 / 군인	초등과 중고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 만족도 / 프로그램, 비만아동
	여성	여성 태권도
	인식 연구	
태권도 경기	심판 및 규정	공격기술, 발차기, 경호기술
	경기 규칙	규칙, 점수
	데이터	경기분석, 수련분석, 심리분석, 평가, 빅데이터 분석
태권도 도장 및 도복		환경, 프로그램, 만족도, 활성화, 마케팅
태권도 진로		입시생, 만족도, 태권도 전공학과, 취업
기타		남북한 태권도, 중국 태권도, 태권도와 건강, 정신지체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타지역 발전, 활성화

로 기준을 삼았다. 세계화는 한류와 신한류, 문화 콘텐츠 등과 태권도를 세계화하는 데 대한 노력과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 등을 세계화로 분류하였다. 또 대상별로는 지도자, 아동과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수련생을 분류 기준으로 하였는데 특히 태권도는 남성만의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태권도 경기와 관련하여 경기, 심판, 심판 규정 관련하여서도 세부 분류하였다, 현재 태권도 수련의 장으로 자주 말해온 도장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했는데 이는 태권도 도장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외에 너무 깊이가 있고 폭넓은 주제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1. 학위 논문의 주제별 연구 경향

학위 논문의 주제별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1,500 편의 학위 논문을 검색하였다. 그리고 < 표 3 > 의 주제별 분류 기준으로 분류하고 분류가 애매한 부분은 내용을 확인하여 주제와 유사한 내용대로 묶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핵심은 태권도를 언어문화 연구의 확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내용상으로도 분류가 애매한 경우, 예를 들어 복수의 주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임의로 분류하였다. 주제별 논문 편수는 < 표 3 > 과 같다.

학위논문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연구를 한 주제는 태권도 수련인과 관련된 연구이며, 그 다음으로 태권도 도장 및 도복과 관련된 주제이다. 태권도 도장에 대한 연구가 220 편일 정도로 태권도는 일정한 교육 공간이 필요하고 이 공간이 태권도 교육과 학습의 공간이자 경제적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함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태권도 수련인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연령별로, 대상별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된 점이다. 아동과 초등학생, 대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327 편의 연구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 지도자에 대한 연구가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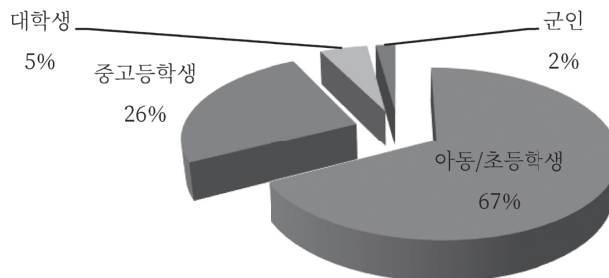
< 표 3 > 학위 논문의 주제별 연구 논문 (편)

연구 주제		학위 논문 편수
태권도 전반		42
태권도 역사 및 철학		41
태권도 기술		92
태권도 교육	교육과정	54
	한국어교육	7
태권도 문화	시범문화	36
	공연문화	57
태권도 세계화		77
태권도 수련인	지도자	144
	선수 (시범단원 포함)	86
	초등 / 청소년 / 대학생 / 군인	327
	여성	32
	인식 연구	53
태권도 경기	심판 및 규정	21
	경기 규칙	30
	데이터	30
태권도 도장 및 도복		220
태권도 진로		29
기타		123
총 논문 편수		1,501

편, 태권도 선수와 시범단원에 대한 연구 86 편이 있었다.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연구가 많았던 이유는 태권도의 지도와 올림픽 등 각종 국내외 경기에서의 1 차적 관심을 지도자와 선수에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권도의 문화로는 시범문화와 공연문화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시범문화와 공연문화를 통해 태권도를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많았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한류와 신한류, 문화콘텐츠 등 태권도를 국내외로 알리려는 노력이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한 77 편의 연구를 통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태권도 수련인을 지도자와 선수를 제외하고 일반 수련인들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는 태권도를 배우는 연령대를 짐작해 볼 수 있고 동시에 10대 미만부터 20대까지의 연령대에서 태권도를 많이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그림 1>에서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고등학생이 26%, 대학생이 5%, 군인 2%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는 것은 태권도 수련 연령 인구가 아동과 초등학생이 많았음을 상대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아동부터 군인까지 10대 미만부터 20대까지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것도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학위 논문의 주제별 연구 경향에서 특이한 점은 북한 태권도 연구가 4편, 중국 태권도 연구가 25편이 있다는 것과 여성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 편수도 32편이나 되었다. 태권도가 남성 중심의 연구가 아님을 남녀 공통의 스포츠임을 연구 주제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연구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온 것에 비해, 특히 92편의 태권도 기술에 대한 연구, 81편의 태권도 경기와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반면에 태권도의 언어문화로의 연구는 다문화를 주제로 한 것을 제외하면 아주 미미했다. 언어교육의 하나인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다문화 대상으로 5편, 한국어 교재와 태권도를 동작동사의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연구가 2편 정도였다. 학술지 논문에 비해 학위논문은 보다 더 깊이 있는



<그림 1> 학위 논문의 연령별 연구 분포 (%)

연구를 한다는 점과 학위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아주 적은 연구 논문 편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태권도가 기술과 경기에는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온 것이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태권도를 언어이자 문화로의 연구로 연구의 확장을 통해 전 세계에 더욱 알릴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학술지 논문의 주제별 연구 경향

학술지 논문의 주제별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학술정보서비스에서 학술지 논문 1,490 편을 검색하였다. 그리고 <표 4>의 연구 주제별 분류 기준으로 분류하고 분류가 애매한 부분은 내용을 확인하여 주제와 유사한 내용대로 묶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핵심은 태권도를 언어문화 연구의 확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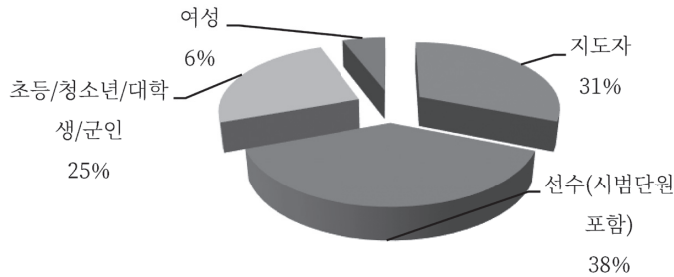
학술지 논문에서도 학위 논문과 같이 태권도 수련인에 대한 연구 결과가 가장 많았다. 태권도 수련인 중에서 지도자와 태권도 선수에 대한 연구가 각각 155 편과 191 편으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해 왔고, 그 다음으로 태권도 기술인 기본자세, 발차기, 품새, 겨루기 등을 다룬 연구가 133 편이었다. 이는 태권도의 기술은 태권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태권도의 문화는 시범문화와 공연문화를 나눌 수 있는데 시범문화와 공연문화 모두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다. 시범문화는 태권도 시범을 통해 국내와 해외에 태권도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 그런 면에서 태권도 시범문화에 대한 연구가 92 편으로 공연문화인 22 편보다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태권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시범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시도되어 왔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표 4> 학술지 논문의 주제별 연구 논문 (편)

연구 주제		학위 논문 편수
태권도 전반		62
태권도 역사 및 철학		99
태권도 기술		133
태권도 교육	교육과정	59
	한국어교육	9
태권도 문화	시범문화	92
	공연문화	22
태권도 세계화		86
태권도 수련인	지도자	155
	선수 (시범단원 포함)	191
	초등 / 청소년 / 대학생 / 군인	124
	여성	29
	인식 연구	59
태권도 경기	심판 및 규정	23
	경기 규칙	40
	데이터	19
태권도 도장 및 도복		127
태권도 진로		53
기타		108
총 논문 편수		1,490

특히 가장 활발히 연구해 온 태권도 수련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 그림 2> 와 같다 .

태권도 수련인 중에서 지도자가 31%, 시범단원을 포함한 선수에 대한 연구가 38% 였다 . 반면에 일반 수련생들인 아동 및 초등학생과 청소년 , 대학생과 군인이 25% 이며 여성은 6% 를 차지했다 . 이는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지도자와 선수들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 일반 수련생들도 태권도를 많이 배우고 있음을 < 그림 2>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학위 논문과 함께 학술지 논문도 여성에 대한 연구가



< 그림 2> 학술지 논문의 태권도 수련인 관련 연구 분포 (%)

6%를 차지할 정도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였다. 또한 태권도 역사와 철학에 대한 연구가 학위논문에서는 41 편이었지만 학술지에서는 철학에 대한 연구가 66 편으로 많았다. 이는 태권도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연구해 왔고 태권도가 기술을 넘어 정신적인 무예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학술지 논문에서는 남북한 태권도, 북한 태권도, 중국 태권도 등 남북한 태권도의 비교, 중국 권법에 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한 연구로 중국 태권도가 학위 논문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음을 논문 편수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술지 논문조차도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모두 9 편밖에 되지 않았다. 좀 더 깊이 보면, 다문화로 5 편,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1 편, 토픽 모델링을 위한 1 편,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태권도를 한국 문화 교육으로 실시한 것을 연구한 논문 1 편 등이 있다. 즉 다문화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단지 대상을 중심으로 정하였을 뿐 내용을 보면 태권도를 언어문화와 연계하여 연구한 논문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를 세계로 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는 태권도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언어문화로의 연구를 통해 보다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旗) 스포츠’, ‘세계적으로도 사랑 받는 스포츠’,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의 유래와 국기(國旗) 태권도의 제정,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태권도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다양한 주제, 보다 깊이 있는 연구 주제, 아동부터 중고등학생들, 대학생과 군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특히 태권도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서 태권도를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태권도 도장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태권도인들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무엇보다도 연령별로 그 대상을 달리해서 맞춤형 연구를 시도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많은 태권도인들과 해외 파견 사범과 태권도 관장들은 기술적으로는 태권도를 널리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태권도의 유래와 역사, 세계화 등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연구 경향에서 언어문화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아주 소홀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태권도의 보급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태권도가 언어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태권도를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 태권도를 가르칠 때, 태극 품새 1 장부터 8 장까지 공통으로 쓰이는 명령어인 차렷, 준비, 시작, 바로, 쉬어 등과 품새를 시연하고 있는 중에 멈추기 위한 명령어인 그만 그리고 품새와 겨루기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어휘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 또한 언어는 협의로는 문화의 일부이다. 일상 생활부터 전문적인 언어 사용까지 언어 사용에는 생활문화 곳곳에서 항상 함께 한다. 앞으로 태권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태권도 기술의 지속적 개발과 연구 외에도 태권도 속에 존재하는 태권도의 정신문화에 언어를 가미한 전파로의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 더욱이 태권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민

족문화의 성격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 결과의 연구 주제를 통해서 태권도가 기술적으로는 발전하고 세계화하고 다양한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지만 태권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태권도 자체의 언어문화적 요소를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 태권도가 한 단계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태권도 기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에 더하여 태권도의 언어문화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지속되어야 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외국인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과 언어문화가 융합된 연구를 새롭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재원 (2013), 다문화 시대에서의 민족문화콘텐츠 ‘태권도’: 가치와 전망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10 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79-104 쪽.
- 국기원 (2009), 《태권도교본》, 오성출판사.
- 국기원 연수원 (2012), 《태권도 유급자 품새 강의 지도서》, 국기원.
- 송형석 · 이규형 (2005), 체육철학: 태권도 개념의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4 권 3 호, 한국체육학회, 57-67 쪽.
- 안용규 (2005), 태권도학의 나아갈 길, 《스포츠과학연구논문집》 15 권,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145-151 쪽.
- 안용규 (2006), 《태권도 탐구논리》, 대한미디어.
- 양진방 · 김현호 (2004), 경호무도로서 태권도 가치와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무도연구지》 15 권 1 호,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1-22 쪽.
- 이동섭 (2019), 《국기태권도》, (주) 영진문화사.
- 임형민 (2011), 한류 콘텐츠인 드라마 시청 동기와 문화 선호도에 관한 연구 - 중국과 일본 대학생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소》 27 권 27 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71-395 쪽.
- 이규석 외 6 명 (2006), 《태권도 역사 · 정신 세미나》, 태권도진흥재단
- 최진성 (2017), 한류 콘텐츠 관여수준에 따른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브랜드

사랑, 방문 의도 간 구조적 관계 - 태권도 커뮤니티를 사례로 -, 《관광학 연구》 41 권 41 호, 한국관광학회, 77-98 쪽.

최영렬 • 김해중 (1989), Circuit weight training 이 身體構成, 筋力 및 有酸素 運動能力에 미치는 效果, 《체육과학논집》 2 호, 경희대학교 체육과학대학, 183-191 쪽.

최흥희 (2005), 《태권도와 나》, 길모금.

한혜진 (2018), “속도 내는 ‘국기 태권도 지정법’.... 상임위 통과”, MOOKAS(GLOBAL MARTIAL ARTS MEDIA), 3 월 26 일자 보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한국태권도신문 <http://koreatknews.com>

태권도신문 <http://www.tkdnews.com>

박경자 (2001), 《응용언어학사전》, 서울: 경진문화사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https://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rean.go.kr>

인터넷 구글 웹사이트 한국어판, <http://www.google.co.kr>

위키백과 한국어판, <http://ko.wikipedia>.

A Study on the Need to Expand the Language Culture of Taekwond—Focusing on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Taekwond

Myeong Su Park^{*}

Abstract

Taekwondo was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ve and was localized as a traditional Korean sport in many parts of the world, and in Korea,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and codified taekwondo as the “The National Martial Arts Technique Taekwondo” in 2018. Taekwondo became The National Martial Arts Technique Taekwondo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legally guaranteed by technology and culture. Nevertheless, it has not spread further. This is because taekwondo goes beyond the technique and overlooks the linguistic and cultural expansion potential in taekwondo terms other than the most basic words such as “charette,” “preparation,” “beginning,” “pharaoh,” and “shea.” In order to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spread of taekwondo,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aekwondo as a language and culture.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in taekwondo-related research that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and on the basis of this, it is intended to suggest the need for the expansion of the language culture of taekwondo. As a result of analyzing degree papers and academic journals related to Taekwondo, there were only five that studied Taekwondo from the perspective of language culture, including two degree papers and three academic journals. It was a paper related to Korean culture,

^{*} Lecturer,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news articles related to taekwondo, and one was the use of taekwondo as part of a “study of kinetic history.” In view of the fact that there are only a few papers linking taekwondo with language culture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expand taekwondo into the study of language culture in the future. To this end,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prior research related to taekwondo, suggesting the need for language and culture expansion research and examining its direction as a basic research.

Keywords: Taekwondo, Flag Taekwondo, Taekwondo Technology, Globalization, Language and Culture